

‘부터~까지’의 組合

李 潤 夏*

1. 文字的 幻影

本稿는 選擇的 樣相의 意味 機能을 가지는 ‘부터’와 ‘까지’가 한 文章에서 共起할 때¹⁾ 예컨대 ‘부터~까지’와 같은 構成을 이룰 때, 그 ‘부터~까지’ 構成이 어떠한 統辭意味의 特性을 드러내는지를 명백히 밝히는 데 있다.

솔직히 말해서, 이제까지 학계에서는 문제의 ‘부터’, ‘까지’나 ‘부터~까지’ 構成에 대해서 이렇다 할 만한 관심조차 보이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데에는 그 나름의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문제에 대한 우리들의 固定觀念이나 反省 없는 답습이 그 주된 요인인 것으로 여겨진다. 최현배(1982=1937) 이래 ‘부터’는 起點, 始發, 始作 등의 의미로 그리고 ‘까지’는 到着, 到及 등의 의미로 인식되어 온 것이 바로 그것이다. 물론 ‘부터’, ‘까지’에 대한 이같은 의미 규명이 전적으로 옳지 않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러나 ‘부터’, ‘까지’가 그같은 어휘적 의미를 갖는다 할지라도, 그들이 한 文章에서 共起할 때 즉 ‘부터~까지’ 構成으로 볼 수 있을 때, 통사·의미적 측면에서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상태로 받아들여져 왔다는 점이다. 이것은 의미적으로 ‘부터’와 ‘까지’가 어떤 呼應의 關聯性을 가지는 어휘라는 소박

* 박사과정

- 1) 여기서 ‘선택적 양상’이란 표현은 다소 지나치게 주관적일 수 있다. 그러나 ‘부터’가 ‘起點’으로 그리고 ‘까지’가 ‘到及’으로 해석되는 限 이것들은 話者의 意識에서 對象에 대한 선택의 起點과 到及으로 볼 수 있다.

한 관념을 문제삼을 때에만 가능한 논리라고 여겨진다. 이러한 立場에 준거하여 우리의 주목을 끄는 것으로 홍재성(1984)가 있다.²⁾ 필자가 알기로는 홍재성(1984)는 ‘부터~까지’ 構成에 관한 한 唯一한 업적인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의미에서라면 그 論議가 가지는 의의와 가치는 크다고 할 수 있겠다. 그에 의하면 ‘부터~까지’ 構成은 複合構成의 單一成分으로서 ‘여정(trajet)의 보어’로 想定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 이 가정적인 가설은 ‘부터~까지’ 構成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해명해 주었다기보다는 복잡화했다고 여겨진다. 그 가설은 어떤 미묘하고 구체적인 통사·의미적 현상을 거의 전혀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컨대, 홍재성(1984)가 문제삼은 (1)과 같은 문장에서 가와 나는 결코 同一한 統辭構造를 갖는다고 볼 수 없다.

(1) 가. 철수는 학교부터 역까지를 뛰어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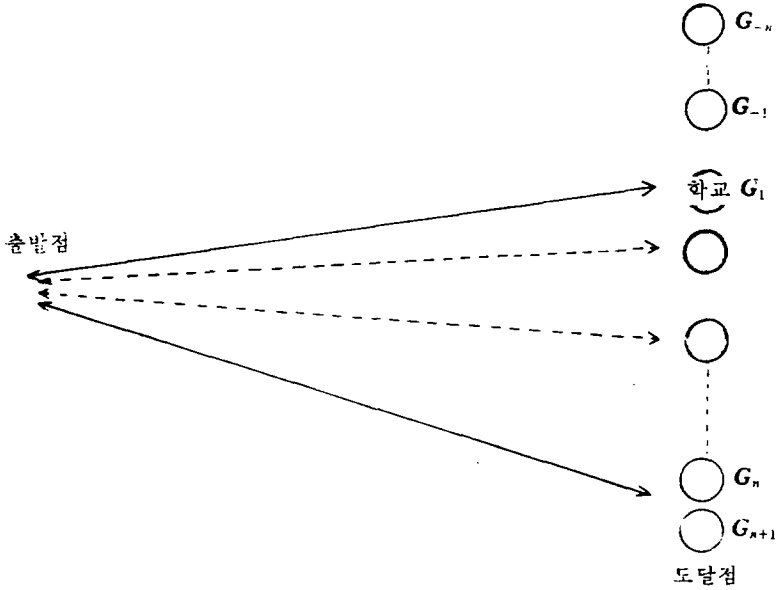
나. 철수는 4km를 뛰어갔다.

‘학교에서 역까지’의 거리를 4km라고 할 때, 홍재성(1984)는 가와 나가 통사·의미적으로 동일한 문장이라는 것이다. 이는 (1)가의 ‘학교’가 4km의 출발점이고 ‘역’이 도달점이라는 잠재적인 인식에서 비롯한다. 만약 그러하다면, 이 경우 ‘부터’는 출발점으로서의 의미로 그리고 ‘까지’는 도달점으로서의 의미로 해석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이는 결코 그렇지 않다. 우리에게 있어 (1)가의 ‘학교부터 역까지’ 성분은 다만 서술어 ‘뛰어갔다’에 관련하는 요소에 불과하다. 指向(goal)의 기능을 가지는 構成 바로 그것일 뿐이다. 즉, ‘학교’는 指向의 起點이고 ‘역’은 到及에 限한다. <도표 1>이 이를 나타내 준다.

<도표 1>이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자명하다. (1)가에는 ‘출발점’으로 여겨지는 성분은 나타나 있지 않은데 ‘도달점’으로 이해되는 성분은 분포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이 때의 분포 양상에서 실현된 도달점이 바로 ‘학교’와 ‘역’이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도달점 G_1 과 G_n 외에 ‘G’의 설정인데 이는 ‘부터’와 ‘까지’가 선택적 분포 양상의 의미 기능을 가지는 添辭가 아닌가 하는 점이다. 만약 이러한 <도표 1>이 (1)가를 바로

2) 그에 의하면 ‘부터~까지’는 복합구성의 단일성분으로서 여정의 보어를 뜻한다는 것이다.

〈도표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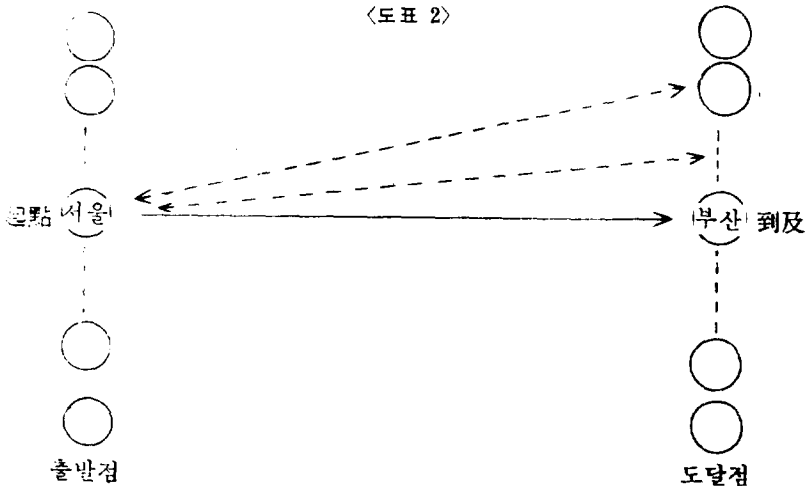


나타낸 것이라면, ‘부터’가 여정의 출발점의 의미를 담고 ‘까지’가 도달점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어떠한 논의도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1)가는 확인되지 않은 어느 출발점에서 指向의 첫 장소로 G_1 (학교)가 선택되고 마지막 장소로 G_n (역)이 선택되어 뛰어감을 뜻한다고 해석될 것이다. 〈도표 1〉의 도달점의 분포에서, 실선은 실현되거나 실현 가능한 장소를 나타내고, 점선은 실현이 예견되거나 예상되는 장소를 나타내며, 그외의 도달점의 설정은 선택 이전의 분포적 양상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雙方向의 화살표는 뛰어가는 行爲의 반복을 가리킨다. 그런데, 이와같은 행위의 반복이 현실세계에 그리 흔치 않게 주어지기 때문에, 엄격히 말해서 (1)가는 그 성립이 다소 기묘하게 보일 수도 있다.

이제 ‘부터~까지’ 構成과 아주 흡사하게 보이는 다음과 같은 문장을 검토하기로 한다.

- (2) 가. 서울부터 부산까지 간다.
- 나. 서울서부터 부산까지 간다.
- 다. 서울서 부산까지 간다.
- 라. 서울서 부산에 간다.

移動性을 문제삼는 동사 ‘가-’는 그 意味役(θ -role)에서 출발점(source)과 도달점(goal)을 갖는다는 것은 더 이상의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러한 의미에서 (2)의 가와 나-라는 구분될 수 있다. 가는 출발점이 표면에 나타나 있지 않은데 반해서 나-라는 나타나 있기 때문이다. 우선 (2)가부터 살펴보기로 하자. (2)가에서 ‘서울부터 부산까지’는 진정한 의미에서 ‘간다’에 관련하는 指向의 성분이다. 즉 指向의 起點이 ‘서울’이고 到及이 ‘부산’임을 나타내 주고 있다. 이 점에서 (2)가는 ‘도표 1’의 설정방법이 유효하다. 그러나 (2)나-라는 (2)가와 전혀 다른 통사구조를 갖는다고 여겨진다. 이는 형태소 {-서}의 통활 유무에 관련하고 있다.³⁾ 그렇다고 해서 (2)나-라 모두가 동일한 의미해석의 적용을 받는다고는 할 수 없다. (2)나에는 출발점에 대한 선택적 양상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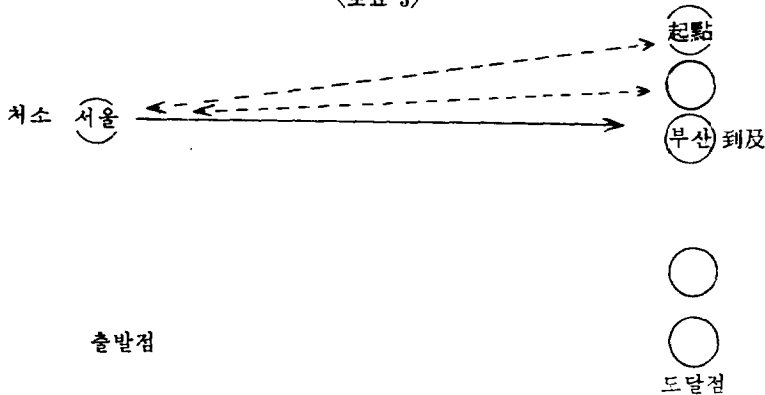
3) {-서}의 여러 의미 기능 중의 하나가 ‘출발점’과 관련한다는 사실만을 주목해도 이러한 해석은 가능하다. 그러나 {-서}의 원초적인 의미가 다른 것일 수도 있다(홍고(1988a) 참조).

깃들여 있는데 다-라는 결코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점은 ‘부터’의 統合이 빚어낸 결과이기도 하다. 따라서 (2)나는 <도표 2>로써 나타낼 수 있다.

<도표 2>에서 ‘서울’은 출발점의 분포에서 제 1 차적으로 선택된 起點이고, ‘부산’은 도달점의 분포에서 마지막으로 선택된 到及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2)나와 같은 文章도 현실세계에서는 그렇게 혼치 않거나 덜 자연스러워 보인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보다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여겨지는 것으로 (2)다를 들 수 있겠다.

그러나 (2)다와 같은 문장에 대해서도 우리는 주의와 경계를 게을리해서는 안된다. 여기에서도 ‘서~까지’는 소박하게 ‘출발점~도달점’과 같은 구성의 어떤 성분이거나 홍재성(1984)적인 여정의 보어로 몰아 붙일 수 없기 때문이다. (2)다의 ‘서울서’ 성분이 다소 출발지로서 해석된다 할지라도 ‘부산까지 가는’ 행위가 벌어지는 처소의 기능을 갖는다는 것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점과 또 (2)나에 비해서 선택적 양상만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따라서 (2)다는 <도표 2>와는 또 다른 분포 양상을 드러낸다.

<도표 3>



이상을 통해서 ‘서부터~까지’와 ‘서~까지’가 어떤 단일한 성분의 복합구성이 아님을 보았는데 이 점에서도 (2)라의 ‘서~에’도 결코 단일한 성분일 수 없다(이에 대해서는 졸고(1988a) 참조). 다만 (2)라가

(2)다와 다른 점은 도달점에 대한 선택적 분포 양상이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3) 가. 김치부터 갈비까지 먹었다.⁴⁾

나. *김치에서부터 갈비까지 먹었다.

다. *김치에서 갈비까지 먹었다.

만약 진정한 의미에서 ‘부터~까지’나 ‘서~까지’가 ‘출발점~도달점’과 관련하는 어떤 연속성의 구성을 갖는다면, 우리는 왜 (3)의 나와 다 같은 문장이 성립할 수 없는지를 해명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3)의 성립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부터~까지’가 ‘출발점~도달점’의 구성으로 느껴지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 가능성은 (3)가와 같은 문장구조가 他動構文이라는 데에서 기인하는 것이지 ‘부터’와 ‘까지’의 본래적인 어휘의미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3)가의 ‘김치부터 갈비까지’는 타동사 ‘먹-’의 目的-對象에 해당하는 성분이기 때문에 다소 ‘출발점~도달점’의 구성으로 여겨질 뿐이다. 그러나 이는 정확한 규명일 수 없다. 보다 정확하게는 목적-대상의 선택적 양상일 것이다. 즉 목적-대상의 ‘起點~到及’構成일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3)의 나와 다가 왜 성립할 수 없는지는 자명해진다. 形態素 {-서}가 소박하게 ‘出發點’이나 ‘起點’과 같은 의미 기능을 가리키는 요소가 아니라, 원초적으로 주어에 있는 것, 주어에 있는 상황과 관련하여 처소를 강화하는 의미 기능을 가지는 요소라는 데에서 찾을 수 있다. ‘김치에서 벌레가 나왔다’와 같은 문장에서의 {-서}가 바로 그것이다. {-서}의 처소 강화 기능에 대해서는 졸고(1989) 참조.

이상의 논의에서 우리는 ‘부터’와 ‘까지’가 서로 긴밀하게 호응관계를 이루기는 하지만, ‘부터~까지’構成이 결코 線的이고 平面的인 연속성을 나타내는, 그래서 거리(양)을 가리키는 여정의 보어의 ‘출발점’과 ‘도달점’의 구성으로 이해될 수 없음을 살펴보았다. 뿐만 아니라, ‘서’와 ‘까지’도 어느 정도 호응관계를 드러내기는 하지만, ‘부터~까지’구성과는 달리 ‘서~까지’라는 구성조차 상정하기가 어려움을 살펴보았다. 따라서, ‘부터’와 ‘까지’의 호응관계나 ‘서’와 ‘까지’의 호응관계는 共

4) 홍재성(1984)는 이러한 類의 문장이 검토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起하는 文章에 나타난 서술어의 의미역이나 논항 등과 연관해석해서만이 정확히 기술될 수 있음을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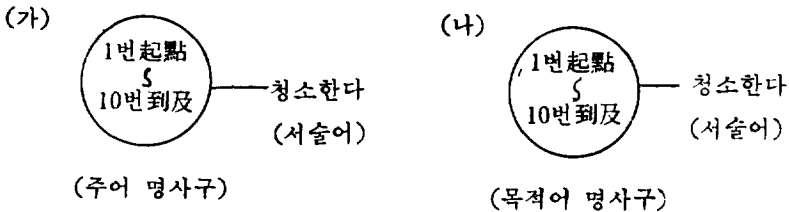
2. 複合構成의 意味

이章에서 우리는 중점적으로 ‘부터’와 ‘까지’가 어떻게 통사·의미적 호응관계를 보이는가를 검토하기로 한다. 우선 다음 문장부터 주목하기로 하자.

- (4) 가. 1번부터 10번까지 청소한다.
 나. 1번서 10번까지 청소한다.
 다. 1번부터 10번까지 청소한다.

먼저 (4)가부터 접근하기로 한다. 그리고 이 담화상황이 학교라는 곳에서 전개되는 것으로 보기로 한다. 이 때에도 ‘1번부터 10번까지’는 서술어 ‘청소한다’와 관련하여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해 보인다. 물론 이러한 구분은 화용적 요인에 의해 이루어진다 하지만, 우리는 본 논의에서 이 점을 고려에 넣기로 한다. 우선, ‘1번’이라든가 ‘10번’ 등이 학생의 출석 번호라면, ‘1번부터 10번까지’는 서술어 ‘청소한다’의 主格 論項 성분에 해당할 것이다. 즉, 主語成分을 이루는 起點과 到及이 복합적으로 구성된 것으로 이해된다. 이 때 ‘부터~까지’는 청소하는 학생의 수적 분포 양상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최소 두 명에서 최대 열명이 그것이다. 그러나, ‘1번’, ‘10번’ 등이 화장실과 같은 공간적 청소 번호를 가리킨다면, 이 때 ‘1번부터 10번까지는’ 서술어 ‘청소한다’의 목적어성분에 해당할 것이다. 즉, 목적어성분이 ‘起點’과 ‘到及’

<도표 4>



과 같은 의미로 통사적으로 복합구성을 이루고 있다. 이 경우에도 ‘부터~까지’ 구성은 청소해야 할 구역의 수적 분포 양상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알기 쉽게 도해하면 다음과 같다.

〈도표 4〉의 (가)는 主語成分으로 이해되는 경우이고 (나)는 目的語成分으로 이해되는 경우이다. 이 두 경우에 있어서 전체를 하나로 묶는 큰 원은 集合을 의미하며, 起點에서 到及에 이르는 ‘J’ 표시는 수적 분포 양상을 나타낸다. 이 점에서 ‘J’ 표시는 ‘빠짐없이’와 같은 한정적인 의미를 뜻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미묘하지만, 의미적으로 (4)나는 (4)가와 아주 유사한 양상을 띤다. ‘서~까지’ 구성이 다치 (4)가적인 ‘부터~까지’ 구성의 수적 분포 양상을 띠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 그러하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서~까지’ 구성에는 많은 문제점이 발견된다. 우선, ‘부터~까지’ 구성에서는 ‘1번부터 청소하고, 2번, 3번…… 10번까지 청소한다’와 같이 해석이 가능하여 ‘부터’가 起點의 의미 기능으로 이해되는데, ‘서~까지’ 구성에서는 ‘1번서 청소하고, 2번, 3번, ……10번까지 청소한다’와 같이 해석이 부자연스러워 ‘서’가 전혀 起點으로 이해되지 않는 점이고, 둘째로 ‘서’가 起點으로 해석되지 않을 때, 예상할 수 있는 그의 의미 기능으로 出發點이나 處所 기능이 가능한데, 이 때에도 (4)나의 성립성을 명쾌하게 설명해 낼 수 없는 점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4)나의 ‘1번서’는 결코 起點이나 처소 그리고 出發點 등과 같은 기능을 나타내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그러면 이때의 ‘서’는 어떤 의미 기능과 관련하고 있을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話者의 經驗表現과 관련하는 요소인 것이다⁵⁾(졸고(1988a) 참조). 나아가서 확대하여 말한다면 처소나 출발점(source)적인 의미 기능도 우리의 話者의 經驗表現과 관련하는 요소인 것이다. ‘서’는 현대국어에서도 여전히 ‘있어’와 관련하는 의미적 遺痕을 가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1번서’의 해석은 ‘1번은 말할 것도 없이’라든가 ‘1번은 청소할 의무가 주어져 있다’ 등과 같이 될 것이다(제 3 장 참조). 이렇게 볼 때, (4)나

5) 만일 ‘1번서’의 ‘서’가 처소(locative)나 출발점(source)의 의미할 때는 ‘10번까지’는 ‘1번’에 내포되어야 한다. 그러나 (4나)의 ‘서~까지’가 분포 양상을 띠는 주어성분이라면, 이같은 해석은 전혀 적용이 불가능하다.

의 ‘1번서부터’는 話者의 經驗이란 認識樣相과 선택적 분포 양상이 함께 介在된 形態로 여겨진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限하여 ‘부터’는 잉여적인 존재로 이해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문장에서는 오히려 ‘서’가 불필요하거나 잉여적인 존재로 보인다.

- (5) 가. ?너부터서 청소해야지.
- 나. ?너서부터 청소해야지.
- 다. *너서 청소해야지.

(5)의 가, 나가 다소 기묘하지만 전혀 그 성립 자체를 부정할 수 없다 면, 이때의 ‘서’는 확실히 불필요하거나 잉여적인 존재일 것이다. 이러한 불필요성이나 잉여성이 (5)의 가, 나를 말할 것도 없고 앞의 (4)다의 성립을 얼마간 기묘하게 하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5)다의 성립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문제의 {-서}가 有情名詞에는 직접 통합되지 않는 言語現象을 암시해 준다고 볼 수 있다. *철수서, *아버님서, *고양이서’ 등등. 이는 {-서}가 그 고유의 의미 기능이나 문법적 기능에서 助詞類와는 다른 존재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우리가 모두에서 {-서}를 添辭로 命名한 이유도 여기에 근거한다.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천착되어야 할 여지가 많다.

‘부터~까지’ 구성이 ‘서~까지’ 구성과 보이는 미묘한 차이에 대한 논의는 제 3장에서 본격적으로 다루기로 하고, 여기서 우리는 ‘부터’와 ‘까지’의 호응관계만을 주목하기로 한다.

- (6) 가. 여기부터 저기까지 내 땅이야.
- 나. ??여기에서부터 저기에까지 내 땅이야.
- 다.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내 땅이야.
- 라. 여기서 저기까지 내 땅이야.

예문 (6)은 두 가지 점에서 주목된다. 하나는 ‘여기’와 ‘저기’가 서로 대응관계에 놓이는 처소 대명사라는 사실이고, 다른 하나는 ‘부터~까지’ 구성 성분이 계사문의 主題(Topic)나 主語成分으로 여겨지는 점이다. 이러한 점에서 (6)가의 ‘여기부터 저기까지’는 공간의 연속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 가능성은 ‘부터’, ‘까지’의 의미 기능이 호응관계에 놓이기 때문에서가 아니라, 처소 대명사 ‘여

기', '저기'의 대응관계와 서술어 명사 어근 '땅'이 等價關係에 놓인 데에서 연유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와 같은 특수한 어휘적 의미가 관련될 때 '부터~까지' 구성은 연속성의 양을 뜻할 수도 있어 보인다. (6)가 (6)가'와 동일한 표현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이해되는 것이 그러하다.

(6) 가. 여기부터 저기까지 내 땅이야.

가'. 오천坪은 내 땅이야.

(6)다와 대비해서 볼 때 (6)나의 성립은 이상을 보인다. 조사 '에'가 전혀 불필요하게 介在되어 있는 현상에서 야기되는 문제로 여겨진다. 이는 처소 대명사 '여기', '저기'에 조사 '에'가 절대로 통합될 수 없는 언어 현상이 아니라, 국어에 있어서 格現象이 원초적으로 統辭的 現象임을 명시해 주는 것이다(졸고(1988a) 참조).

(6)다와 라에 대한 설명은 별다른 어려움을 가지지 않는다. 이들에 대한 해석은 (4)의 나와 다에 대한 설명방법이 그대로 적용 가능하기 때문이다.

'부터~까지' 구성이 우리가 想定한 선택적 분포 양상만을 문제삼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예들도 있다.

(7) 가. 1번 창구부터 10번 창구까지 서성거렸다.

나. ??1번 창구에서부터 10번 창구에까지 서성거렸다.

다. ??1번 창구에서 10번 창구까지 서성거렸다.

라. ??1번 창구서 10번 창구까지 서성거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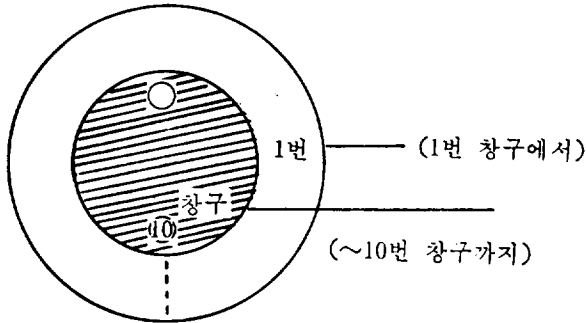
(7)가는 '서성거리는' 동작의 區間이 분명히 1번 창구부터 10번 창구까지에 이른다는 내용을 나타내 주기는 하지만, 平面的이고 線的인 '1번 창구부터~10번 창구까지'의 빠짐 없는 연속성을 뜻하지는 않는다. 가령, 1번 창구에서 10번 창구까지의 거리가 약 50m라고 가정할 때 (7)가가 산술적으로 50m 거리를 서성거렸다고 주장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다만, (7)가의 의미 표현은 '서성거린' 동작의 분포가 1번 창구부터 10번 창구까지에 이른다는 것에 限할 뿐이다. 한편 (7)나-라의 성립은 아주 의심스러워 보인다. 그런데 이 중에서 (나)는 다소 그 성립의 맛이 남아 있는 듯이 보이는데, 이는 '에서부터'와 '에까지'가 서로 호응관

계에 놓이는 것으로 여겨지기도 하는 데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動詞 ‘서성거리-’가 어느 정도 移動性을 띠고 있기는 하지만 본질적으로 그같은 특성이 限定性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限, (7)나는 거의 결코 성립하기가 어려워 보인다. 이것은 動詞 ‘서성거리-’가 그 의미역에서 처격으로는 하나만 지배한다는 통사현상을 암시해 주기도 한다. 만약 이러한 가정이 정당하다면, (7)가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도 있을 것이다.

(7)가’ {1번 창구부터 10번 창구까지}에서 서성거렸다.

(7)가’가 (7)가와 통사·의미적으로 동일한 문장이라면, 이 ‘1번 창구부터 10번 창구까지’는 복합구성의 처격성분으로 이해될 것이다. (7)다, 라가 성립하기 더욱 어려워 보이는 것도 이같이 예의 처격성분이 들쭉이나 있어 Fillmore(1968)적인 一文一格의 原理에 위배되는 데에서 기인한다. 그러나 ‘10번 창구까지’가 ‘1번 창구에서’에 내포되는 명사구라면, 문장 성립의 여지는 남아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1번 창구가 다시 10개 이상의 창구로 세분되어서 그것들의 처소(locative)로 이해되는 경우가 그러하다. 이를 개략적으로 도해하면 다음과 같다.

<도표 5>



바깥 원으로 한정된 지역은 ‘1번 창구에서’를 가리키며, 안에 내포된 사선친 원은 ‘10번 창구까지’를 한정한다. 만약 이러한 설명이 올바른 것이라면, ‘서~까지’를 언제나 ‘출발점~도달점’구성인 것으로만 볼 수 없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서, 부수적으로 ‘부터~까지’와

‘서~까지’는 언제나 同値의 意味 關係로 파악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7)가는 성립이 가능하지만, (7)다, 라는 거의 성립하기 어려워 보인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예문은 그 성립이 가능해 보인다. 이 점에서, 문장 성립에 있어서 ‘서~까지’나 ‘부터~까지’와 같은 구성이 서술어의 의미특성과 얼마나 긴밀한 관련을 맺고 있는지를 새삼 깨닫게 된다.

- (8) 가. 1층부터 5층까지 오르내린다.
 나. 1층에서부터 5층에까지 오르내린다.
 다. 1층서부터 5층까지 오르내린다.
 라. 1층서 5층까지 오르내린다.

우선 (8)의 예문들은 각기 통사·의미적으로 다른 차이를 드러내고 있음이 주목된다. 가는 ‘오르내리는’ 층수가 1층에서 5층까지 분포되어 있다는 뜻으로 족하다. 이 때, ‘부터’와 ‘까지’는 선택적 분포 양상을 문제삼는 ‘起點’과 ‘到及’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8)나부터는 다소 또는 상당히 다른 미묘한 차이를 드러내 준다. 여기서 가에 비해 나~라에는 공히 ‘서’가 개재하고 있기 때문에 ‘오르내리는’ 행위주인 주어나 주체가 1층이란 곳에 있거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예상되기도 한다. 그러나 그러한 의미적 특수성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엄격히 말해서, 그들 예문 간에는 서로 같을 수 없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특히 다와 라에는 많은 의미적 차이가 드러난다. 즉 (8)라에는 (8)다에 있는 선택적 분포 양상이 결여되어 있다. (8)다는 적어도 5층까지 오르내리는 동작이 제일 먼저 1층에서 주어지고, 순차적으로 다시 다른 층에서 5층까지 오르내리는 동작이 주어지는 의미까지 함의하고 있다. 이같은 예상은 ‘서’ 뒤에 ‘부터’가 통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8)라에는 그러한 양상적 인식이 깃들여 있지 않다. (8)라는 다만 5층까지 오르내리는 동작이 1층에 주어져 있다는 것을 나타낼 뿐이다. 이러한 의미와 관련해서 ‘1층서’는 때로 출발점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엘리베이터’와 같은 구절이 文意를 한정해 주는 경우가 그러하다. 만약 이러한 논의가 유효하다면, (8)가와 (8)다, 그리고 (8)가와 (8)라 등의 표현은 서로 각각 거의 전혀 동일한 가치를 가지지 못할 것이다.

이와 같이 미묘한 차이를 느끼게 하는 또다른 예가 있다.

- (9) 가. 1번부터 5번까지의 문제가 다소 이상하다.
 나. ?1번서부터 5번까지의 문제가 다소 이상하다.
 다. 1번서 5번까지의 문제가 다소 이상하다.

우선 (9)가에서 ‘1번부터 5번까지’는 주어진 문제의 문항 분포 양상을 나타내는데, 그것이 속격구성인 한 ‘1번부터 5번까지’는 연속성을 띤 복합구성의 단일 성분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런데, 이와는 달리 (9)의 나, 다는 통사·의미적 특징의 차이를 보여 준다. 먼저 (9)나부터 보자. 그것의 성립이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듯이 여겨지기도 하지만, 그 성립성 자체를 전적으로 부정할 수는 없는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이러한 한에 있어 (9)나는 두 가지 측면에서 해석될 수 있다. 하나는 (9)가적인 의미해석의 그것으로 이 때에는 ‘서’를 잉여적인 요소로 처리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9)다적인 의미 해석으로 보는 것이다. ‘1번’은 큰번호의 문항 표시이고 ‘5번’은 그 속에 내포된 작은 번호의 문항 표시일 때가 그것이다. 이같은 해석의 가능성은 사람에 따라 다소 저항감을 느끼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처소(locative) 기능이나 ‘經驗表現’과 관련하는 형태소 ‘서’와 선택적 분포 양상의 ‘起點’을 의미하는 ‘부터’가 통합되어 나타난 예 (4)다의 성립이 가능한 한, 이와 같은 해석이 결코 전혀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지지는 않는다. 다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9)나와 같은 표현은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9)나는 어쩔 수 없이 기묘할 수밖에 없다.

(9)다는 그 성립이 전혀 의심스럽지 않다. 그러나 이는 (9)가적인 해석 바로 그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9)가적인 해석이 유효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9)나적인 해석이 전적으로 배제되는 것도 아니다. 후자의 입장에 관한 한, 오히려 (9)나보다도 훨씬 더 자연스럽게 성립한다. 요약해 말한다면, (9)다의 ‘1번서’는 언제나 한결같이 문항의 첫 출발점으로만 해석되지 않고, 주어진 큰번호의 ‘1번’으로서 처소 기능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이러한 점은 ‘1번서’ 뒤에 잠정적으로 다음과 같이 休止(pause)를 설정해 보면 더욱 자명해 보인다.

- (9) 다’ 1번서, 5번까지의 문제가 다소 이상하다.

(9)다’가 성립한다면 그래서 ‘서’가 출발점의 기능만을 가지는 것으로

로 이해되지 않는다면, ‘서~까지’나 ‘에서~에’ 등이 비판없이 ‘출발점~도달점’과 같은 구성이라는 견해는 많은 문제를 야기시킨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통사·의미적으로 ‘부터~까지’ 구성을 ‘서~까지’나 ‘에서~에’와 같은 구성과 유사한 것으로 보는 견해도 받아들일 수 없다⁶⁾(제 3장 참조).

이제 우리는 ‘부터~까지’가 마치 平面的이고 線的인 그래서 空間的인 連續性이 문제되는 여정보어로 이해되는 듯한 문장을 검토하기로 한다.

- (10) 가. 승용차로 서울부터 마산까지 간다.
 나. 승용차로 서울서부터 마산까지 간다.
 다. 승용차로 서울서 마산까지 간다.

예문 (10)은 어떤 ‘特定性’이 결여되어 있는 ‘車便’이 조건지어진 문장들이다. 이러한 점에서 얼핏보아 (10)의 ‘서울’과 ‘마산’은 線的인 그래서 지도상의 두 지점인 출발점과 도달점인 것처럼 여겨지기도 한다. 그러나 전적으로 부정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그것은 예상은 지극히 문자적인 의미로서의 예상에 불과할 뿐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예 (10)의 정체를 명쾌하게 밝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동사 ‘가-’의 의미특성에 주목해야 한다.

(11) ‘가-’ (Agent (source) goal)

(11)에서 (Source)를 괄호로 묶은 것은 ‘Source’가 필수적인 항목은 아니라는 것을 뜻한다. 이는 指向(goal)이 필수적인 것과는 아주 좋은 대조를 보인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동사 ‘가-’가 對格을 지배하는 경우는 제외하기로 한다.⁷⁾ 특이하게, ‘밤길을 가다’와 같은 표현이 그러한데, 이같은 문장은 논외로 하기로 한다. 만약 (11)과 같이 동사 ‘가-’의 의미역에서 ‘goal’이 필수적이면, 예문 (10)에 대한 우리의 설명은 전혀 문제되지 않을 것이다. 우선 (11)을 (10)가에 적용하기로 하

6) Abasolo(1977:130)이 이러한 가정의 전형적이고도 극단적인 예이다. 그러나 필자는 직접 이를 대할 수 없었다. 이의 인용은 홍재성(1984) 주 6)에 근거한다.

7) 이러한 언어 현상을 ‘을/를’ 主題化로 해석한 논의로 任洪彬(1972)가 참조된다.

자. 이럴 때 (10)가의 ‘서울부터 마산까지’는 (11)이 나타내는 한에 있어 ‘goal’을 가리키는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10)가를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도 있을 것이다.

(10) 가’ 승용차로 [서울부터 마산까지]에 간다.

(10)가’에서처럼, 처격조사 ‘에’가 ‘서울’과 ‘마산’에 두루 共有된다면, (10)가의 의미 내용은 자명해 보인다. 즉, 승용차로 먼저 서울부터 가고 그리고 문면에 주어져 있지는 않지만 예견되거나 예상되는 어떤 곳을 가고 가고……그리고는 마지막으로 마산까지 간다는 것이 그것이다. 이에 대한 상황은 <도표 1>과 <도표 4(가)>가 참조된다. 만약 이러한 설명이 올바른 것이라면, (10)가의 ‘서울부터 마산까지’도 비록 車便 ‘승용차’로 조건지어진다 할지라도 여전히 연장선상의 공간적 ‘起點~到及’의 구성으로는 전혀 해석될 수 없을 것이다. 여기서의 ‘부터~까지’도 역시 다만 처격성분의 분포적 양상을 ‘기점~도급’의 구성으로 나타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11)에 비추어서 (10)나와 다는 ‘Source’까지 가지는 구성으로 이해된다. 이 점에서 나와 다는 전통적인 ‘출발점’과 ‘도달점’이 서로 호응관계를 이루는 구성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의미적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이 두 문장은 언제나 결코 동일한 표현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10)나가 ‘출발점’의 선택적 양상을 띠는 데 반해서, (10)다는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이 그러하다. 즉 (10)다의 표현에 비해서 (10)나의 그것은 ‘출발점’으로서 ‘서울’이 우선적으로 선택되었다는 양상적 의미가 더 드러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만약 선택적 양상을 전혀 문제삼지 않는다면, 그때는 (10)나와 다는 완전히 동일한 표현 가치를 가진다고 보아야 옳으며 이러한 한에 있어서만 ‘부터’는 잉여적인 존재에 불과할 것이다. 다소 (10)나의 성립이 부자연스럽게 느껴지는 이유도 바로 이러한 데에 있다. 그러나 (10)나에서 ‘서’의 존재는 거의 절대로 잉여적일 수 없다. 만약 잉여적이라면, (10)나는 근본적으로 ‘Source’의 의미 기능을 상실하고 말기 때문이다.

또한 (10)다의 ‘서울서’, ‘마산까지’가 비록 ‘출발점’과 ‘도달점’의 의미로 해석된다 할지라도, 결코 연장선상의 공간적인 여정보어로서의

‘출발점~도달점’과 같은 구성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다. 車便 ‘승용차로’는 ‘서울’과 ‘마산’을 路線上의 어떤 限定性을 어휘 특성으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는 달리 현실세계에서 거의 經驗的으로 만드시 어떤 限定性을 지니는 車便으로 이해되는 어휘가 나타나는 문장이 있다.

(12) 가. 비행기로 서울부터 뉴욕까지 간다.

나. 비행기로 서울서부터 뉴욕까지 간다.

다. 비행기로 서울서 뉴욕까지 간다.

(13) 가. ?새마을호로 서울부터 대구까지 간다.

나. ?새마을호로 서울서부터 대구까지 간다.

다. 새마을호로 서울서 대구까지 간다.

한정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우선 우리는 예 (12)의 ‘비행기로’가 예 (13)의 ‘새마을호로’보다 훨씬 덜 제약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의미적 양상은 航空便이 列車便보다 훨씬 공간적 제약을 덜 받는다는 경험세계의 인식에서 비롯한다. 다시 말하면, 航空便은 立體的 空間에 주어진 것인데 列車便은 平面的 空間에 주어진 것이라는 特性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12)가는 동작주가 비행기로 어디선가 출발하는데 그의 첫 기착지로 ‘서울’이 선택되고 마지막 기착지로 ‘뉴욕’이 선택됨을 내용으로 한다. 이러한 해석은 결코 ‘서울’이 비행기가 이륙하는 출발점이 아니라는 사실과 함께 ‘서울부터 뉴욕까지’가 항공의 全長 거리를 뜻하는 구성이 아니라는 사실도 명백히 해 준다. 이러한 의미에 한하여 ‘서울부터 뉴욕까지’는 비행기로 가는 거리(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指向의 처격성분에 지나지 않는다. 이 점에서 ‘서울부터 뉴욕까지’는 복합 구성의 처격성분일 뿐이다.

예의 ‘서울’이 출발점이 되려면, (12)나나 다와 같이 표현되어야 할 것이다. 직관적으로도 (12)나와 다의 ‘서울’은 비행기가 이륙하는 곳으로 여겨진다. 그들에는 ‘서’가 있기 때문이다(졸고(1988a) 및 (1989) 참조). 그러나, (12)나와 다가 모두 ‘서울’을 출발점으로 하고는 있지만, 그 의미적 양상은 서로 크게 다르다. 나가 비행기로 출발하는 첫번

째 곳으로 ‘서울’을 선택하고 있는데 다는 결코 그러한 양상적 정보를 나타내 주지 않는다. 다만, (12)나에서 ‘부터’는 어느 경우 잉여적일 수는 있다(예(10)나 설명 참조).

앞서의 논의처럼 ‘서울’을 비행기가 출발하는 곳으로 해석하는 것이 결코 무리한 것이 아니라면, (12)다의 ‘서울서 뉴욕까지’는 다음 두 가지 측면으로 고찰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는 서울발 뉴욕행의 정기 항공편의 경우이다. 이 때는 ‘서울서 뉴욕까지’를 산술적으로 항공거리로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하나는 비행기가 自家 비행기의 경우이다. 이 때는 경유지가 수의적이어서 ‘서울서 뉴욕까지’를 산술적인 항공 거리로 나타낼 수 없을 것이다. (12)다에 대한 이같은 해석이 정당하다면 이러한 의미에 있어 ‘서~까지’가 경우에 따라 ‘출발점~도달점’과 같은 거리(양)을 나타내는 구성으로 해석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해석은 ‘비행기로’와 같은 표현이 언표외적 즉 현실세계의 經驗이나 慣行과 같은 인식과 관련하는 특성을 가지는 어휘라는 데에서 기인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비행기로’는 어떤 限定性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12)가에 비해서 (13)가가 훨씬 더 이상하게 보이는 것은 앞에서 보았듯이 평면적 공간이 입체적 공간보다 더 제약적이기 때문이다. (13)가가 나타내는 의미가 ‘새마을호’라는 열차편으로 먼저 서울부터 가고 마지막으로 대구까지 간다는 것이라면, 적어도 출발점을 ‘서울’, ‘대구’ 외의 어떤 곳이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상황은 현실세계에서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13)가는 자연히 그 성립이 기묘할 수밖에 없다. 왜냐 하면, 다음과 같은 문장은 그 성립이 아주 자연스럽기 때문이다.

(14) 전철로 시청부터 동대문까지 간다.

(13)가에 나타나는 이러한 제약이 (13)나에 예외적이지 않다. ‘출발점’의 분포적 양상과 특정성의 열차편 ‘새마을호’가 빚는 현상이 현실 세계에 주어져 있다고 보기에는 지나치리만큼 현실성이 결여되어 있다. 그러나 (13)다는 의심의 여지없이 아주 적격한 문장이다. ‘서울’이 출발점으로 이해되고 대구행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이 때에는 ‘새마을호’가 한정성을 띠는 것으로 이해되며, 이러한 점에서만 ‘서울서 대구까지’는 ‘서울~대구’ 區間의 거리(양)으로 환산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限定性이 주어질 때에만 ‘서~까지’는 ‘출발점~도달점’의 호응 관계 구성으로 이해된다.

이章에서 이제까지 우리는 비록 ‘부터’, ‘까지’가 ‘起點’, ‘到及’의 의미로 서로 호응관계를 이룬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평면적인 공간선상의 연장성이나 연속성을 나타내는 양단적 기능 즉 ‘출발점~도달점’과 같은 구성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검토에 의하면, ‘부터~까지’ 구성은 거의 절대로 문자적인 여정보어의 기능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다만 선택의 분포적 ‘起點~到及’의 양상으로서 복합 구성의 단일성분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부터~까지’에 대한 이같은 해석이 유효한 한, 우리는 ‘부터~까지’와 ‘서~까지’가 통사·의미적으로 동일한 차원에서 설명될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다음 장에서 검토하기로 한다.

3. ‘서~까지’와의 關聯性

제 2장에서 우리는 ‘부터~까지’ 구성이 가지는 ‘서~까지’ 구성과의 관련성을 암시적으로 검토하였다. 그러나 이제 그 관련성을 분명하게 밝히기 위해서 본장에서는 ‘서~까지’ 구성의 통사·의미적 특성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이다. 먼저 다음 문장을 보기로 한다.

- (15) 가. 광주부터 간다.
나. 광주까지 간다.
다. 광주서 간다.

(15)에서 가, 나,의 ‘광주’는 서술어 ‘간다’와 관련하여 指向의 선택적 처격성분으로 이해된다. 다만 가는 ‘起點’의 선택적 양상을 띠며 나는 ‘到及’의 그러한 것을 띠는 것이 다를 뿐이다. 따라서 (15)가, 나에는 전혀 ‘출발점’으로 여겨지는 어떤 성분도 들어 있지 않다. 그러나 (15)다의 ‘광주’는 결코 指向의 처격성분이 아니라, 어느 정도 출발점의 성분으로 이해된다. ‘서’가 가지는 의미 특성과 서술어 ‘간다’의 의미 기능이 관련하여 빚어 낸 결과이다. 그렇기는 해도 다음과 같은 문장에서는 ‘서-’ 통합명사구가 언제나 출발점만으로는 여겨지지 않는 것이 문제라면 문제이다.

(16) 가. 서울서 노량진까지 달린다.

나. 서울서 광화문 네거리에서 노량진까지 달린다.

만일 (16)가에서 ‘서울’이 출발점으로 여겨진다면, 이 문장은 절대로 성립할 수 없어야 했다. ‘서울’과 ‘노량진’은 다른 지역의 두 처소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16)가가 성립하는 限, ‘서-’통합명사구가 언제나 ‘출발점’의 기능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결코 정당하지 않으며 이 점에서 앞 (15)다의 ‘광주서’도 단순히 출발점으로만 여길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는 ‘서’의 본래적인 의미 기능이 ‘Source’적인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일지도 모른다는 우리의 가정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우리의 가정을 그대로 가능한 것인 듯이 반영하는 것이 예 (16)나이다. 만약 (16)나의 성립이 의심스럽지 않다면, 그리고 Fillmore적인 一文一格의 原理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예의 ‘서울’과 ‘광화문 네거리’는 결코 다같이 출발점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오히려 문맥적으로 보아 ‘서울’은 뒤따르는 문장 내용이 전개되는 처소(locative)로 이해되며, 반면에 ‘광화문 네거리’는 출발점으로 이해되어 보인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키우는 것은 한 문법학자가 어떤 형태소의 의미 기능을 추적할 때, 문맥 의존적인 것에 매달리게 되면, 그는 그 형태소가 가지는 원초적인 의미특성에는 거의 근접할 수 없지 않을까하는 점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서’의 원초적인 의미 특성은 졸고(1988a)(1989)에서 검토된 바와 같이 ‘주어진 것, 주어진 상황’을 나타내어 話者의 經驗 表現과 관련하거나, 처소를 강화하는 것으로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잠정적으로 (16)나의 ‘광화문 네거리’를 ‘출발점’으로 받아들이기로 하자. 이때 결코 (16)나는 예 (17)과 동일한 의미를 나타낸다고 볼 수는 없다.

(17) 서울서 광화문 네거리부터 노량진까지 달린다.

예문 (17)의 성립은 조금도 이상하지 않다. 만약 그러하다면, 여기서의 ‘서울’은 더더욱 ‘출발점’이 아님이 자명하다. 다만 ‘서울’은 상황이나 사건이 펼쳐지는 처소(locative)로 이해될 뿐이다. 이러한 한에 있어 (17)의 ‘서울’은 (16)나의 ‘서울’과 전혀 다르지 않다. 그러나 ‘광화문 네거리부터’는 (16)나의 ‘광화문 네거리에서’와 전혀 다른 통사·

의미적 양상을 보여 준다. 즉 서술어 ‘달린다’의 의미역과 관련해서 ‘광화문 네거리부터’는 指向의 선택적 첫 起點을 나타내며, ‘광화문 네거리에서’는 다소 ‘출발점’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의미에서 ‘부터’와 ‘(에)서’는 결코 동일한 의미 기능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부터~까지’와 ‘서~까지’는 서로 다른 독자적인 통사·의미적 특성을 가진다고 말할 수 있다.

(18) 가. 고속버스로 청주부터 간다.

나. 고속버스로 전주까지 간다.

다. 고속버스로 서울서 간다.

車便이 조건지어진 (18)도 결코 예외적인 설명을 기대하지 않는다. (18)가는 고속버스로 가는 첫기착지로 ‘청주’가 선택됨을 나타내 주고 (18)나는 고속버스로 가는 마지막 기착지로 ‘전주’가 선택됨을 나타내 주는데, (18)다는 서울발 고속버스로 어디에론가 가는 상황을 나타내 준다고 볼 수 있다. 이같은 해석에서도 우리는 ‘부터’가 ‘서’가 지니는 출발점과 같은 의미 특성은 전혀 가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

그런데 예 (18)의 가, 나 그리고 다가 상호 빚어내는 결합의 양상은 매우 흥미롭게 보인다. 다음이 바로 그것이다.

(19) 가. 고속버스로 청주부터 전주까지 간다.

나. 고속버스로 서울서 청주부터 간다.

다. 고속버스로 서울서 전주까지 간다.

라. 고속버스로 서울서 청주부터 전주까지 간다.

(19)가는 (18)가와 나를 결합시킨 문장이고 (19)나는 (18)다와 가를, (19)다는 (18)다와 나를, 그리고 (19)라는 (18)의 가, 나 그리고 다를 결합시킨 문장들이다. 그런데 이들 예문 (19) 모두가 성립한다는 것은 문제의 ‘부터’와 ‘서’가 결코 동일한 의미 기능을 가지는 형태소가 아니라는 사실을 단적으로 입증해 준다고 볼 수 있다. 왜냐 하면, 만일 동일한 기능을 가진다면 그 문장은 절대로 성립할 수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한 문장에 서술어의 의미역과 관련하는 어떤 성분이 절대로 동일한 의미 기능을 지니는 형태로 둘 이상 나타날 수 없다는 格現象이기도 하다.

(20) 가. *아들에게 철수에게 연필을 준다.

나. *바다에 육지에 간다.

(20)가가 다소 성립하기 위해서는 ‘아들’과 ‘철수’가 결코 동일 인물이 아니고 대등관계로 열거된 人物들이어야 하며, 이러한 점에서 (20)나가 성립하기 위해서도 ‘바다에’와 ‘육지에’가 대등관계이어야 한다. 그러나 예 (20)의 성립이 거의 절대로 불가능한 한, (19)의 성립성은 특히 ‘부터’와 ‘서’가 결코 동일한 의미 기능을 가지는 형태소들이 아니라는 사실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19)가에서 ‘청주부터’는 출발점의 표시가 아니라 도달점의 첫 起點을 나타내 준다. 이러한 점에서 (19)가는 (18)가,나와 동일한 구조를 가진다. 따라서 (19)가의 ‘청주부터 전주까지’는 복합 구성의 처겨성분으로 이해된다. (19)나는 서울발 고속버스로 첫 기착지인 청주행을 실현한다는 내용을 나타낸다. 이러한 의미로 해석되는 한, ‘부터’는 절대로 출발점과는 아무런 관련을 가지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19)나적인 설명이 그대로 적용 가능한 것으로 예 (19)다가 있다. (19)다는 서울발 고속버스로 마지막 기착지인 ‘전주’를 향하는 사전적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서~까지’가 ‘출발점~도달점’의 구성으로 이해되는 점이다. 이러한 예상은 전적으로 ‘서’, ‘까지’의 논리에서 비롯하기보다는 ‘고속버스’라는 어휘 요소의 의미 작용에서 비롯한다. ‘고속버스’는 이미 예정된 거리나 코스를 주행하는 한정성을 지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거리(양)만을 문제삼을 때 (19)나도 ‘출발점~도달점’의 구성을 가지는 듯이 여겨진다. 선택적인 양상적 의미만 제거한다면, (19)나도 틀림없이 서울발 청주행 고속버스로 구간 거리(양)만큼 ‘가기’ 때문이다. 이럴 때 우리는 ‘서~부터’를 또하나의 ‘출발점~도달점’의 구성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이는 결코 그렇지 않다. 그렇다면, (19)다의 ‘서~까지’는 어찌해서 ‘출발점~도달점’의 구성으로 이해되는 것일까. 경험적이고 관행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이것은 ‘까지’는 到及의 의미로 ‘서’와 어느 정도 호응 관계를 이루는 듯이 보이는데 ‘부터’는 起點의 의미로 ‘서’와 그와 같은 호응 관계를 이루지 못하는 데서 오는 것으로 여겨진다. 다시 말하면, ‘부터’는 다소 시작의 의미

로 그 다음에 일어날 어떤 상황이나 사건을 예견해 주는 의미 특성을 가지는데, ‘까지’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이 점에서 (19)나 는 그후로 ‘청주’ 외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 전제되지만, (19)다는 전혀 그 같은 예상이 가능하지 않다. (19)다에서는 전주까지 이르는 과정의 어떤 경유지만이 예상될 뿐이다. 이러한 의미와 관련해서만 ‘서~까지’는 ‘출발점~도달점’의 구성인 것으로 여겨지며, 그것도 ‘서’가 ‘출발점’ 그리고 ‘까지’가 ‘도달점’이라는 의미 기능에서가 아니라, 원초적으로 ‘서’는 ‘어떤 상황이 주어져 있는 것’, 그리고 ‘까지’는 ‘어떤 상황이 미치는 마지막 분포’라는 의미 기능이 맞아 떨어진 데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19)라의 성립이 가능하다면, (19)라는 서울발 고속버스로 제일 먼저 ‘청주’를 가고 맨마지막으로 ‘전주’를 가는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먼저 ‘서울발 청주행’의 가는 행위를 실현하고 난 뒤에 마지막으로 ‘서울발 전주행’의 가는 행위를 실현한다는 내용을 나타낸다. 이러한 해석이 유효한 한, 따라서 (19)라는 ‘출발점~도달점’의 구성이 복합적으로 결합되었다고 해도 지나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 어휘 특성으로 인하여 ‘부터~까지’가 거리(양)을 뜻하는 ‘출발점~도달점’인 듯이 여겨지는 경우도 있다. 다음이 그러하다.

(20) 가. 여기부터 저기까지 우리 집 논이야.

나. 여기서 저기까지 우리 집 논이야.

이와 같은 가능성은 이미 예 (6)가에서 묵시적으로 검토되었다. 의미적인 측면에서 (20)의 가와 나 는 거의 다르지 않다. 이 점은 ‘부터~까지’가 ‘서~까지’와 통사·의미적으로 1:1 관계에 놓이기 때문에서가 아니라 ‘여기’와 ‘저기’같은 어휘가 가지는 의미 특성 때문에서이다. ‘여기’와 ‘저기’는 처소를 가리키는 대명사로서 이미 어휘 자체에 어느 정도 空間的 領域이 주어진 것으로 여겨진다. 여기에 다시 ‘논’과 같은 처소명사가 관련함으로써 ‘부터~까지’나 ‘서~까지’는 연속적인 거리(양)을 뜻하는 구성으로 여겨지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논’이 평면적 공간을 뜻하는 어휘인데 여기에 다시 처소성을 지니는 대명사 ‘여기’, ‘저기’가 共起함으로써 ‘여기’라는 구역부터 ‘저기’라는 구역까지 ‘논’이 잇대어(連續되어) 있다는 것이 자명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가정은 ‘부터~까지’나 ‘서~까지’가 통사적으로 호응 관계에 있는 구성이라는 데서가 아니라 ‘여기’ ‘저기’와 같은 처소성의 대명사와 ‘논’이라는 처소명사가 어휘적 의미로 연계된 데서이다.

그런데 (20)과 같은 어휘적 특성에다 어떤 한정성을 가지는 구절이 풍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에는 ‘부터~까지’와 ‘서~까지’가 거리(양)을 나타내는 ‘출발점~도달점’의 구성처럼 이해되기도 한다.

(21) 가. 시험 범위는 55쪽부터 102쪽까지로 한정하자.⁸⁾

나. 시험 범위는 55쪽서 102쪽까지로 한정하자.

(22) 가. 이번 시험은 55쪽부터 102쪽까지에서만 난다.⁸⁾

나. ??이번 시험은 55쪽서 102쪽까지에서만 난다.

(21)가의 ‘부터~까지’는 (21)나의 ‘서~까지’와 의미적으로 거의 유사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시험 범위’라는 한정성의 어휘에다 ‘55쪽’, ‘102쪽’ 그리고 ‘한정’이라는 어휘들이 관련하여 빛의 의미적 조화에서 기인한다. 역설적으로, 이러한 예견은 여전히 ‘부터’와 ‘서’는 동일한 의미 기능을 가지는 다른 형태소가 아니라는 사실을 암시한다고 할 수 있다. 예 (21)가는 주제로 이해되는 ‘시험 범위는’에 이미 ‘범위’가 주어져 있으므로 부사어 성분 ‘55쪽부터 102쪽까지’는 그 범위의 ‘한정’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부터~까지’는 線的인 연속성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같은 가정을 지지해 주는 것으로 (22)가가 있다. (22)가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조사 ‘에서’의 통합 양상인데, 이 ‘에서’는 통사적으로 ‘102쪽까지’에만 관련되는 것이 아니라, ‘55쪽부터’에도 관련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것은 다음 문장의 성립이 거의 가능하지 않은 데에서도 찾을 수 있다.

(23) 가. ??이번 시험은 55쪽에서부터 102쪽에서까지만 난다.

나. ??이번 시험은 55쪽부터에서 102쪽까지에서만 난다.

(23)가, 나가 성립이 거의 전혀 가능하지 않는 한, 이 점에서 (22)가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밖에 없을 것이다.

(24) 이번 시험은 {55쪽부터 102쪽까지}에서만 난다.

8) 홍재성(1984)에서 인용한 예들이다.

만약 (24)가 (22)가의 의미를 온전히 보존한다면, { } 속의 ‘부터~까지’는 (21)가의 ‘범위’에 해당할 것이다. 따라서 (22)가는 달리 다음과 같이 나타내도 무방하다.

(25) 이번 시험은 범위 55쪽부터 102쪽까지에서만 난다.

(24)에서 (25)에 이르는 과정에서 예 (22)가의 의미 내용이 아무런 변화를 입지 않는다면, 문제의 ‘55쪽부터 102쪽까지’는 범위의 분포 양상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 한할 때에만 ‘부터~까지’는 거리(양)을 나타내는 구성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예 (22)나는 그 성립이 결코 범상치 않다. 이와 같이 (22)나의 성립이 이상을 보이는 것은 (22)가에서와는 달리 첨사 ‘서’가 잘못 개재된 데에서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즉, 서술어 ‘난다’의 의미역과 관련해서 처격성분이 둘이나 나타나 있는 점에서 그러하다. 따라서 이러한 환경에서의 ‘서’와 ‘까지에서’는 전혀 호응 관계를 이루지 못할 뿐 아니라 거리(양)을 나타내지도 못한다. 오히려 이러한 경우에는 언제나 (22)가만이 적격한 문장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부터~까지’ 구성이 ‘서~까지’ 구성과 함께 언제나 동일하게 연속적인 구간의 양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되는 예가 있다. 통합되는 어휘가 時間名詞일 때가 그러하다.

(26) 가. 1시부터 3시까지 만났다.

나. 1시서부터 3시까지 만났다.

다. 1시서 3시까지 만났다.

(26)가-다는 ‘2시간 동안 만났다’는 뜻으로 전혀 의심의 여지가 없는 문장들이다. 이러한 의미에 관한 한 ‘1시부터 3시까지’나 ‘1시서 3시까지’는 두 시간이라는 時間量을 나타낸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은 時間名詞 경우에서의 현상은 특이하다면 특이하다. 이것은 ‘時間’이라는 개념이 가지는 특수성에서 비롯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時間이란 세계에 주어져 있는 것, 기다리거나 기다릴 필요가 없고 풀이킬 수 없는 것, 게다가 피할 수도 초극할 수도 없는 것 등, 이러한 의미에서 時間은 不斷의 연속성을 속성으로 하는 특이성을 가진다. 한마디로 시간이란 정지함이 없고 공간처럼 뛰어 넘거나 우회할 수 없는 實在이다. 이러한

점에서 시간명사가 ‘부터’ ‘까지’에 통합하거나 ‘서’ ‘까지’에 통합하면, 예의 ‘1시부터 3시까지’ 구성과 ‘1시서 3까지’ 구성은 언제나 時間의 量으로의 환산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부터~까지’ 구성과 ‘서~까지’ 구성이 의미적으로 동일하지 않음에 유의해야 한다. ‘부터’와 ‘까지’가 ‘起點’과 ‘到及’의 선택적 분포 양상의 호응관계를 이룬다면, ‘서’와 ‘까지’는 결코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는 (26)나의 성립이 암시하는 바와 같이 ‘서’, ‘부터’ 형태소 중 그 어느 하나도 전혀 잉여적이지 않은 데에서 찾을 수 있다. 다시 말하면, (26)나는 (26)가와 다른 의미를 가지는 한편 (26)다와도 다른 의미를 보인다. (26)가가 단순히 ‘두 시간’이라는 시간양만을 가리킨다면, (26)나는 ‘기다림의 1시’라는 보다 심리적인 인식 문제마저 가로놓여 있다고 여겨진다. 이러한 인식문제만을 문제삼은 것이 바로 예 (26)다이다. 따라서 ‘서’는 소박하게 Source적인 의미만을 나타내지 않고 화자의 경험 표현과 관련하는 형태소로 가정할 수 있다. 우리의 이같은 가정을 지지해 주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예문이 있다.

(27) 1시서야 겨우 만났다.

우리에게 있어 예 (27)의 성립은 정당하다. 이러한 한, 예 (27)은 만남을 위해 1시 이전부터 집요하게 기다렸다가 드디어 1시에 와서야 성취되었을 때에만 가능한 문장으로 여겨진다. 이 점에서 ‘서’는 결코 단순한 의미에 있어 ‘부터’의 그것과는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며, 그러한 우리의 경험 표현과 관련하는 요소로 이해된다. 따라서, 예 (26)에서 가-다는 모두 ‘2시간’이라는 시간양을 共有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의미적 양상은 조금씩 다르다고 해야 온당하다.

이제까지 이장에서 우리는 ‘서~까지’의 ‘부터~까지’와의 관련성을 검토하였다. 일반적으로 몇몇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부터~까지’는 거의 ‘서~까지’와 통사·의미적으로 다르다는 것이었다. 여기서 ‘특수한 경우’란 특이한 의미 특성을 가지는 어휘(처소명사나 시간명사)나 어떤 한정성을 띠는 명사구가 통합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때에는 ‘부터~까지’ 구성이 ‘서~까지’ 구성과 함께 구간의 어떤 量을 가리키는 명

사구와 대체가 가능하다고 본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부터’와 ‘서’는 결코 동일한 의미 기능을 나타내는 다른 形態素라고 볼 수가 없다.

4. 結 論

본고의 출발은 起點의 ‘부터’와 到及의 ‘까지’가 빚어내는 분포적 양상을 살피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였다. 특히 ‘부터~까지’ 구성이 공간적 연장이 가능한, 동작이 이루어지는 공간 구간의 거리(양)을 표현하는 여정의 보어인가에 주목하면서 ‘서~까지’ 구성과 어떻게 관련하는지를 검토하였다.

그런데 우리의 논의에서 얻은 결론은 비록 ‘부터~까지’ 구성이 복합 구성의 단일 성분을 나타내기는 할지라도, 그 자체가 여정의 보어일 수는 없다는 것이었다. 우리에게 있어 ‘부터~까지’ 구성은 다만 문장 서술어와 관련하는 어떤 한 문장 성분의 起點과 到及을 가리킬 뿐이라는 것이다. 즉, 선택적인 분포 양상으로서의 ‘부터’와 ‘까지’의 통합일 뿐이지 區間的 거리(양)을 나타내는 여정 보어는 결코 아니었다. 예컨대 예 (1)가 ‘철수는 학교부터 역까지를 뛰어갔다’는 학교에서 역까지 거리(양)을 뛰어갔다는 뜻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 학교부터 뛰어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역까지 뛰어 갔다는 이른바 도달점의 분포 양상을 나타낸 것이다.

특수한 경우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부터~까지’가 거리(양)을 나타내는 때도 있다. 이때에는 이 구성에 통합하는 어떤 특징적인 또는 한정적인 의미 특성을 지니는 어휘가 보다 적극적인 의미 작용을 하는 것으로 기대된다. 가령, 공간적 의미를 가지는 처소명사 ‘여기, 저기’와 뛰어넘거나 우회할 수도 그리고 돌이킬 수조차 없는 세계에 주어진 實在로서의 시간명사 등이 ‘부터’, ‘까지’와 통합할 때가 그런한데, 이때 ‘부터~까지’ 구성은 거리(양)을 나타내는 것으로 여길 수도 있다. 여기에 덧붙여서, 이미 어떤 限定性을 띠는 ‘범위, 한정’ 등과 ‘車便’ 같은 어휘와 통합할 때에도 이같은 해석은 유효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는 ‘부터’, ‘까지’의 논리에서가 아니라, 그 구성에 통합하는 그 어휘 요소들의 논리에서 가능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는 ‘부터~까지’ 구성이 ‘서~까지’ 구성과 통사·의미적으로 결코 동일하지 않음도 주목하였다. 이는 단적으로 ‘부터’의 의미 기능과 ‘서’의 그것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밝혀 준다. 따라서 ‘서~까지’를 ‘출발점~도달점’ 구성과 같은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다소 무리하다. 우리에게 ‘서’는 원초적으로 주어진 것, 주어진 상황, 처소를 강화하는 기능, 그리고 화자의 경험 표현과 관련하는 기능 등등의 형태소로 여겨지며, ‘부터’는 선택적 분포 양상의 ‘起點’과 관련하는 기능을 가지는 형태소로 여겨질 뿐이다.

그런데 ‘서~까지’가 ‘출발점~도달점’과 같이 구간의 거리(양)을 나타내는 구성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있다. 어떤 한정성이나 특정성을 띠는 어휘 요소가 공기할 때가 그러한데, 이러한 점에서 그같은 의미 해석은 ‘서’, ‘까지’의 논리에서 비롯한 것이 아님이 자명해진다.

따라서, ‘부터~까지’ 구성이나 ‘서~까지’ 구성은 그 자체만으로 어떤 구간의 거리(양)을 나타내는 여정 보어의 기능을 가지지 않는다.

<참고문헌>

- 고영근(1976b), 特殊助詞의 意味分析, 문법연구 3.
 임흥빈(1972), 國語의 主題化 研究, 國語研究 28.
 최현배(1937=1982), 우리말본, 정음사.
 홍재성(1984), -부터/-까지의 복합구성에 대한 別견(警見), 한글연구 6.
 Fillmore, C. (1968), The case for Case, In Bach & Harms (1968).
 줄고(1988a), 經驗 表現의 {-서}에 대한 研究, 國語研究 81.
 ____ (1988b), ‘(이)라서’에 대한 警見, 語文研究 58. 一潮閣.
 ____ (1989), {-께서} 문법, 霽曉 李庸周博士 回甲紀念論文集,